통(通)성경이 회중의 말씀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탐라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민경민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8년 5월

Copyright © 2018 Kyungmin Mi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ong Bible Learning for Understanding the Words of the Congregation
A Case Study of Tamra Church, Jeju, Korea.

Kyungmin Min

Tamra Church, Jeju, Korea

The year 2017 marks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Ever since the gospel was brought into Korea by missionaries, Korean churches spent a period of revival by the spirits of the Reformation, ‘Sola Scriptura’, ‘Solus Christus’, ‘Sola Gratia’, ‘Sola Fide’, ‘Soli Deo Gloria.’ So, there were many events inside Korean churches to celebrate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But more important than such events, I think,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all of religious reformers 500 years ago. Especially, Korean churches need to be refreshed with the spirit of ‘the Bible on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oncrete alternative to the church of today to recover the Bible in a holistic sense.

This study was researched using the ‘Tong Bible’ and ‘The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of TongBible.’ In this Study, when used in a program like ‘Tong Bible School’ and ‘Tongdok Early Morning Service,’ through the methodology of 'Reading the Bible', 'Listening to the Bible' and 'Meditation by Tong Bible'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ong Bible,’ It has come to the attention of the saints to see the impact of Learning for Understanding the Words of the Congregation.

Specially, the author has interviewed in depth fiv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ong Bible Program’ was very effective in hearing and understanding the words of God. The Bible, which had seemed difficult, was easy to feel and could understand God's heart expressed in the Bible.

It's time to go back to ‘Sola Scriptura.’ I hope that the Korean church will revive

itself by understanding the words of God through the principles of ‘Tong Bible’ and ‘The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of Tong Bible.’ In addition, each church is confident that it has a clear effect when understanding the Bible through a practical ‘Tong Bible Program’, so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and implement them.

국문초록

통(通)성경이 회중의 말씀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탐라교회를 중심으로

민경민

탐라교회, 제주

지난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한국 땅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온 이후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앙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수많은 행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행사들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오직 성경’이라는 정신으로 다시 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오늘의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회복해야 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통(通)성경’과 ‘통(通)성경의 원리와 방법론’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通)성경’은 조병호가 창안한 것으로서 ‘통(通)’의 개념과 ‘통(通)신학’, 그리고 ‘통(通)신학과 방법론’을 살펴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탐라교회 안에서 ‘통(通)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성경 통독’과 ‘성경 듣기’, ‘통(通)성경묵상’이라는 방법론이 ‘통(通)성경학교’와 ‘통독새벽기도회’라는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되었을 때, 성도들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5명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통(通)성경 프로그램’이 말씀을 듣고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것임이 확인되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이 쉽게 느껴지고,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때, 한국교회가 ‘통(通)성경’과 ‘통(通)성경’의 원리와 방법론을 통하여 말씀을 쉽게 이해함으로 다시금 성경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또한, 개 교회에서 실제적인 통(通)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할 때에 분명한 효과가 있음을 확신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목 차

감사의 글 x

표 목차 ix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선행연구 및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4

논문의 구조 5

Ⅱ. 통(通)신학과 통(通)성경 6

통(通)의 개념 6

통(通)신학과 방법론 8

통(通)신학과 통(通)성경 11

Ⅲ. 통(通)성경 방법론 13

성경통독 13

성경듣기 22

통(通)성경 묵상 28

Ⅳ. 회중의 상황과 통(通)성경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34

탐라교회 회중의 상황 34

탐라교회의 통(通)성경 프로그램 41

통(通)성경 프로그램 참여자 분석 45

Ⅴ. 결론 64

요약과 평가 64

결론과 제언 65

부록 69

참고 문헌 89

표 목차

<표 1> 성경 66권 역사 순 배열/20마당/40개 줄기 15

<표 2> ‘마음과 생각’ 큐티 묵상과정 32

<표 3> 탐라교회 통(通)성경 새벽기도회 진행 타임 테이블 42

<표 4> 탐라교회 통(通)성경학교 진행 타임테이블 43

<표 5> 탐라교회 통(通)성경학교 커리큘럼 44

감사의 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했던 학위 논문 과정이 마무리 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부터 함께 하셨고, 과정 중에도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며, 본 연구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과정을 시작하도록 동기부여 해 주시고, 선생의 마음으로 성심 성의껏 지도해 주신 조병호 박사님, 김영래 박사님, 레너드 스윗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안목이 열리도록 도와 주셨고,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조병호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루대학에서 티칭을 해 주시고, 논문이 완성되도록 힘써 주신 김영래 박사님의 세심한 지도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선한 강의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해 주신 스윗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논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제가 섬기고 있는 탐라교회 가족들의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종의 지도에 잘 따라와 주셨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기간 동안 여러 모양으로 열심히 후원해 주셨기에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담되었을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이 논문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양주현)와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 태원, 태희, 준원이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특별히 공부하느라 가장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또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저에게는 목회자 상의 모델이 되셨고, 천국에서 열심히 응원하셨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어디 몸 상하지는

않은지 염려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며,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못한 감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신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 5월

민경민

제 Ⅰ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였다. 500년 전인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다.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세계 교회가 지난 500년간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상황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보다 먼저 위기의 중심에 도달한 서구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윤식은 앞으로의 10년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골든타임[1]이라고 진단한다.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있는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다시 샘솟게 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아무리 길거리에서 날고 긴다고 해도, 제대로 배운 사람 앞에서는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력이 늘 수 있는가? 제대로 배우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 하나님께서

[1] 최윤식, 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9.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문제와 시련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최윤식은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게 된 원인을 말할 때에 외부적으로는 '상황의 변화'이고, 내부적으로는 '교회다움의 상실'이라고 했다.[2] 한국교회의 주변 상황은 매우 크게 변화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급격한 변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 교회학교를 보자. 20~30년 전만해도 차고 넘쳤던 아이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선 더 재미있고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다. 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해 버림으로 교회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자가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밟으셨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껴 보기 위해 힘썼고, 실제로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매우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본 연구자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성지라고 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왜 여태껏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는 것이었다. 구주 예수께서 다니시며 천국복음을 증거 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숙소에서 특별한 것을 하나 보게 되었다. 그것은 '메주자'(MEZUZA)라고 하는 것으로,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쉐마의 말씀[3]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

[2] Ibid., 117.

[3] **신명기 6장 4~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하신 말씀을 따라 호텔 각 방문 기둥 옆에 양피지에 기록한 말씀을 통에 넣어 붙여놓은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메주자'가 문기둥 옆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 통 안에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에게는 '메주자'가 마치 부적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 놓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모습들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했다.

무늬만 교회, 무늬만 성도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문제와 위기의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와 위기의 해결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연구자는 과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통독을 1989년부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성경통독의 학문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써 온 조병호의 연구와 노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 및 연구의 방법

한국교회의 성장과 함께 개신교는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성경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론과 더불어 많은 원리를 말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식들이 있어 왔다. 하지만 조병호가 말했던 '통(通)성경'과 같은 연구는 많지 않다.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3] **이동환, "특집대담 조병호 박사," *목회와신학* (2012, 3), 48-52.**

본 연구는 조병호가 주장한 ‘통(通)성경’과 ‘통(通)성경’ 원리와 방법을 밝힌 그의 연구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병호가 개발한 통(通)성경 프로그램인 ‘통(通)성경학교’와 말씀 묵상 자료인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고 그의 이론의 적용에 대한 탐구를 해 볼 것이다.

본 논문은 문헌 연구와 함께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제적 ‘통(通)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의 심층인터뷰를 활용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로는 조병호가 말한 통(通)과 통(通)신학, ‘통(通)성경’ 방법론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볼 것이며, 심층인터뷰는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탐라교회에서 진행했던 ‘통(通)성경학교’와 ‘통독새벽기도회’에 함께한 참여자들 중에서 5명을 선발하며 서면과 더불어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어울러 본 논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때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통(通)성경’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다만 ‘통(通)성경’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타당한지의 여부와 논리적인 근거를 밝히기 보다는 ‘통(通)’과 ‘통(通)신학’, ‘통(通)성경’의 정의와 방법론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통(通)성경’이 회중의 말씀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통(通)성경’의 방법론으로서 성경통독과 성경듣기, 통(通)성경 묵상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적 상황과 회중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고 아울러 ‘통(通)성경’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에 회중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떠한 구체적인 효과를 끼치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조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제 Ⅰ장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논문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 Ⅱ장에서는 통(通)과 통(通)신학의 개념을 정리하고 통의 개념과 통신학과 방법론, 통신학과 통성경의 연관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 Ⅲ장에서는 통(通)성경의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경통독과 성경듣기, 통(通)성경묵상을 살펴볼 것이다. 제 Ⅳ장에서는 통(通)성경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역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탐라교회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서 본 연구의 주제에 따라 '통(通)성경' 이 회중의 말씀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제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평가, 그리고 결론과 제언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제 Ⅱ 장

통(通)신학과 통(通)성경

통(通)의 개념

최근 통(通)이란 표현이 다양한 곳에서 발견된다. 사실 통은 동양에서는 낯선 단어가 아니다. 서양이 개별과 개체에 관심을 가졌다면, 동양은 전체와 통합을 중요시해왔다. 그러면 통이란 무슨 뜻인가? 통이라고 할 때 한자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다. 하나는 통(統)으로 큰 줄기를 뜻하는 말로 개체를 통합시키는 의미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통(通)은 "통하다, 왕래하다, 알다, 전하여 알리다, 정을 통하다, 온통, 통(편지 또는 서류를 세는 말)"[1]으로 정의한다. 통(通)신학에서 두 번째 의미의 통을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통성경이 단지 성경 전체를 모두 읽어 통합적 이해를 시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와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전체와 부분을 소통하게 하고 역사적 시간과 상황적 공간을 왕래하게 하는 통전적 성경읽기를 통성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조병호는 통(通)에 대하여 " '통하다' 의 대상이 사람과 사물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대상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도 가능하며, '통하다' 라는 말의 대상이 복수가 될 수도 있다." 고 했다.[2] 예를 들면, 통하는 대상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

[1] 김낙준, *뉴에이스 국어사전* (서울: 금성교과서주식회사, 1993), 1958.

[2]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55-57.

말은 내가 가진 생각이 어느 누군가와의 생각과 동일할 때 ‘통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정이나 정서 등이 나와 통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하는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상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리해 본다면 ‘통하다’라는 개념은 어느 특정한 대상으로만 한정 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 ‘통으로 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조병호는 ‘통으로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 ‘어떠한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갖은 요소를 꿰뚫어 이해하다.’는 말로 설명한다.[3] 다시 말해, ‘통으로 보다’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이해함에 있어서 단순한 1차원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에,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부분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조병호는 ‘통으로 본다’의 의미를 ‘동양과 서양의 방식이 조화를 이루어 사물을 인식하는 총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한다.[4] 서양은 대체적으로 대상을 인식할 때에 부분 부분을 분석하고 나누어 관찰하지만, 동양은 부분보다는 전체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에 조병호는 서양의 ‘부분’과 동양의 ‘전체’를 함께 유기체적으로 아울러 보는 것이야말로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병호의 동양과 서양의 사고를 통합하여 통으로 보는 방식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시도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이미 살펴 본 통(通)의 개념과 이 후에 살펴 볼 통(通)신학, 통(通)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

[3] Ibid., 62.

[4] Ibid., 64.

하겠다.

통(通)신학과 방법론

그렇다면 통(通)신학이란 무엇인가? 조병호에 의하면 "통(通)신학이란 '통(通)'과 '통(通)으로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읽기 방식에 적용시킨 기독교 경전해석의 방법론"이다.[5]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인물, 공간, 사건, 시간 등과 관련된 기록을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부분만 보고 해석을 하면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듯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방식과 관점들을 종합하여 이해의 다양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한 해석 방법이 통(通)신학이라 할 수 있다.

통(通)신학의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볼 수 있다.[6] 첫째,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을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 보통 통시(通時: diachronic)라 함은 어떤 특정 대상 또는 사실을 이해함에 있어서 시간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관점을 말하고, 공시(共時: synchronic)라 함은 같은 시대에 나타난 특징을 살필 때 사용하는 말로 동시대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관점을 말한다. 즉,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공시와 통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거쳐, 다윗을 지나 예수님까지

---

[5]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48.

[6] Ibid., 49-50.

2000년이라는 세로축인 통시(通時)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5가지의 제사와 7개의 절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아모스, 호세아, 미가라는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간이 가로축인 공시(共時)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전 중심의 성경읽기와 심정 중심의 성경읽기 방식을 통(通)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전 중심의 성경 읽기라 함은 서양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서양적 사고는 경전을 이성적으로 대하고 분석하고 이해해 왔다. 반면 동양적 사고는 심정중심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通)신학의 방법론으로 해석한다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동서양의 두 가지 방법론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양립하는 두 영역이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통(通)신학적인 관점으로 조화와 균형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방법론이다. 전체와 부분, 통합과 분석, 공시와 통시, 이성과 감성, 지식과 실천과 같이 서로 다른 영역으로 존재하는 개념들을 통(通)으로 함께 봄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론인 것이다.

조병호는 통(通)신학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5가지로 설명한다. 첫 번째 방법론은 '하나의 현상에 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7] 한 사물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상으로 볼 수 있기에,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식하는 주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방법이 공시적 접근과 통시적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다.

---

[7] Ibid., 53.

두 번째 방법론은 ‘분리된 개체 속에 부여할 수 있는 공통특성을 찾는 것’이다.[8] 이것은 어떤 대상이 있을 때에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 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서로 다른 대상이지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본질적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론은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것’이다.[9]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연결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을 볼 때에도 부분으로 볼 때와 전체로 볼 때가 의미가 다를 수 있기에 동시에 고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전체와 부분을 의미할 때, 조병호는 ‘숲과 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10] 전체 숲을 보면서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방식이다.

네 번째 방법론은 ‘Text와 Context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다.[11] 성경에 기록된 Text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환경과 상황이라는 Context 안에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Text와 Context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균형 잡힌 시각으로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방법론은 ‘극단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것’이다.[12] 모더니즘의

---

[8] Ibid., 58.

[9] Ibid., 60.

[10] Ibid., 29.

[11] Ibid., 63.

[12] Ibid., 65.

상황 속에서 극단적이었던 것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 속에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체들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우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조병호가 말하는 통(通) 방법론의 5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조병호는 모더니즘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실과 특징을 받아들이되,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정적 영향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으로 통(通)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통(通)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론을 말함으로 다양한 삶의 적용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5가지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라도 그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작동할 수 있는 틀로 통(通)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결국, 조병호는 '통(通)을 21세기에 필요한 총체적 삶의 방식으로 제시'[13]함으로 통(通)의 의미와 기능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통(通)신학과 통(通)성경

조병호는 "통(通)이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상수(常數)이며, 대상의 속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꿰뚫어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관계와 계약, 공시와 통시, 이성과 감성, 지식과 실천, 부분과 전체 등의 서로 다른 영역을 동시에 봄으로써 조화와 균형, 공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14] 이라 말한다.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할 때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특징이 탈 중심적 다원적 사고를 지향하면서 중심성이 해체되고, 탈 이성적 사고를 말하면서 이성과 합리를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

[13]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142.

[14] Ibid., 85.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없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통(通)의 개념은 서로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나눠지고 특성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묶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通)은 '서로 전혀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하나로 묶어내는 방법'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 통(通)이 바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묶어낼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조병호는 통(通)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상수'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15]

종합적으로 볼 때에 통(通)신학이란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입장에서 수렴하여 성경을 보는 것이기에 성경통독은 통(通)신학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通)신학을 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숙지해야 하며, 그러한 관점들을 상보적, 유기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데,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은 성경통독을 통하여 얻기 때문이다. 성경을 부분만 볼 때에는 여러 가지 관점을 얻기 힘들지만, 성경 66권 전체를 볼 때에는 각 부분마다 적합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점을 얻기 때문이다.[16] 따라서 '통(通)성경'이란 통(通)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통으로 읽고 보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

[15] 김한성, "통성경 방법을 통한 성경듣기에 대한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9.

[16] Ibid.

제 Ⅲ 장

통(通)성경 방법론

성경통독

성경통독의 목적과 의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앞서 통(通)신학의 방법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성경은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성경을 파편화된 부분적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읽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통(通)의 방법론으로 읽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서구의 경전을 읽는 방식은 분석적이고 부분적인 방식이었고, 동양적인 성경읽기 방식은 전체적인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두 방법은 함께 아우러져야 한다.[1] 이를 위해 성경을 통(通)으로 읽을 때에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에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 66권을 대할 때에 각 권이라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읽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성경을 지나치게 부분적으로 읽어왔다. 성경 66권 전체를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읽어왔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잘못된 방향으로 연구하고

[1]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49.

해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조병호는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은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인식할 때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2]

둘째,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읽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경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되, 성경 전체를 역사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장르라는 구분으로 배열되어 있다. 구약 39권은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5권, 예언서 1권으로 구분되어 있다.[3] 이러한 전통적인 배열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각 권이 가지는 역사적인 순서를 고려하고 재배열하여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4] 성경을 통해서 알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의 최종 목표이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고 정리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

[2]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5), 142.

[3] 구약은 율법서(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언서(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서(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사도행전), 바울서신(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공동서신(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예언서(요한계시록)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4]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51.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집필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유의할 것은 성경읽기에 있어서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조병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역사 순서대로 배열하고,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20개의 마당으로 정리하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40개 줄기 스토리로 정리하였다. 정리하고 배열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성경 66권 역사 순 배열/20마당/40개 줄기

역사 순 배열	20마당	40개 줄기
창세기	**1마당: 하나님의 마음**	1과 원역사 2과 족장사 3과 입애굽과 민족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장~10:10	**2마당: 열방을 향한 꿈**	4과 출애굽과 제국 5과 세계 선교의 꿈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민수기 10:11~36장, 신명기, 시편 90편	**3마당: 만나 세대**	7과 만나세대 8과 만나학교 졸업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4마당: 신앙 계승**	9과 약속의 땅 입성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11과 교육의 성공사례
사무엘상·하, 역대상, 시편, 열왕기상 1~2장	**5마당: 천년 모범**	12과 미스바 세대 13과 왕정의 시작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열왕기상 3~11장, 역대하 1~9장, 시 72, 127편,	**6마당: 마음과 지혜**	15과 솔로몬과 시가서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1~20장, 역대하 10~32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사야, 미가	**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16과 남북 분열 왕조 17과 북이스라엘 멸망
열왕기하 21~25장, 역대하 33~36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예레미야, 오바댜, 예레미야애가	**8마당: 절망 앞에선 희망**	18과 남유다 멸망 19과 잠깐의 징계
에스겔, 다니엘	**9마당: 징계, 희망의 디딤돌**	20과 포로민 설득 21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에스라, 시편 119편,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10마당: 재건 공동체**	22과 성전 재건 23과 성벽 재건 24과 고백과 침묵
신구약 중간사	**11마당: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25과 헬라제국과 중간사 26과 로마제국과 중간사
마 1~4장, 막 1장~3:19, 눅 1장~6:19, 요 1~2장	**12마당: 기쁨을 위한 탄생**	27과 예수님의 탄생
마 5~19장, 막 3:20~10:31, 눅 6:20~19:10, 요 3~11장	**13마당: 한 영혼 사랑**	28과 공생애 3년

마 20장~27:31, 막 10:32~15:20, 눅 19:11~23:25, 요 12장~19:16	**14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29과 마지막 일주일
마 27:32~28장, 막 15:21~16장, 눅 23:26~24장, 요 19:17~21장	**15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30과 십자가 승리-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12장	**16마당: 열리는 제자 시대**	31과 열리는 제자시대
사도행전 13~21:16, 데살로니가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17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32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33과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4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21:1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전·후서	**18마당: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35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36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37과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38과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일·이·삼서	**19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3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요한계시록	**20마당: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40과 최후 승리의 노래

조병호는 ‘성경에는 대략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이 들어 있다’[5] 라고 말하면서, 통(通)으로 성경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을 말한다.

첫 번째 관점은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6]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 공간, 인간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通)으로 묶어서 함께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건들을 읽다 보면 시대(혹은 시간)가 있고, 사건들이 벌어진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등장한다. 구체적인 예로 사무엘의 경우를 통해 시간, 공간, 인간을 어떻게 통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종료시키시고, 왕정 500년을 시작하기 위한 과도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디자인하시고, 모세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 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부르신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집이 있던 라마를 중심으로 해마다 벧엘과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세대(미스바 세대)를 세우고자 애를 썼고, 왕정제도의 폐해를 알려주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자 애를 썼다. 이렇게 한 인물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함께 살펴본다면, 성경의 사건과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

[5]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6). 11.

[6] Ibid.

이것이 통(通)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은 '개인·가정·나라를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7] 성경을 읽어 가면서 개인, 가정, 나라에 대한 스토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렇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정, 나라를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병호는 신구약의 스토리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째 되던 시점에 갈대 상자에 놓인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모세의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어머니가 그를 그 안에 태웠으며, 누나가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망을 봄으로써 완벽하게 뜻이 잘 맞고 화목한(?) 모세의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정 내에서 문제가 없고 마음이 하나였던 그 가정이 어린 모세를 죽을 확률 99.9%인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가정이 히브리 민족이라 불릴 만큼 하나의 민족은 이루고 있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8]
>
>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개인·가정·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 이야기이다.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와 함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로 함께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통通성경이다.[9]

보통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 성경의 내용을 개인과 가정의 이야기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성경에 내재된 하나님의 큰

---

[7] Ibid., 12.

[8] Ibid.

[9] Ibid.

그림을 보는 교육받지 못했다.[10] 또한 성경을 개인과 가정의 이야기로만 한정 지어 보아왔다. 결국 성경의 사건이나 스토리 안에서 나라의 개념을 찾는 일을 시도해보지 못했다. 위에서 소개한 모세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개인과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스토리를 보게 되면 모세 개인의 이야기로, 모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 개인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가정 스토리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볼 수 없게 된다.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성경 속 이야기들을 읽어 나갈 때 반드시 개인과 가정, 나라 이야기를 통으로 묶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통(通)으로 성경을 보는 세 번째 관점은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11] 특별히 이 방법은 구약과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중간사 시대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마치 함정에 빠진 것과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부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제사와 율법을 이야기하는 레위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예언서(선지서)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다. 구약을 통독할 경우에 더욱 그러한데, 구약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워

---

[10] 조병호는 그의 책 통성경학교 14쪽에서 5세부터 20세까지 큰 그림 3가지를 그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3가지 큰 그림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나라', '모든 민족' 이다.

[11]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2.

나가시는 이야기이고,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릇에 온전히 담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모세오경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출애굽과 제사장 나라의 시작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언서(선지서)에 기록된 예언과 선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정 500년이 배경이 되는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앗수르 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사마리아인의 탄생, 그리고 앗수르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요나와 나훔서를 이해할 수 없다. 바벨론 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레미야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해할 수 없다. 페르시아 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스룹바벨의 성전재건, 느헤미야의 성벽재건, 에스라의 신앙 부흥을 이해할 수 없다. 헬라와 로마 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분파를 이루게 된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십자가 사건과 사도 바울의 사역, 서신서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심으로써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가셨는지, 중간사 시대를 지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까지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묶어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세 가지 관점과 더불어 고려할 것은 성경을 파편화(fragmented books and multiple disconnected stories)하지 않고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2]

---

[12]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5.

‘성경을 파편화하지 않고 66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 로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는 것’ [13]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을 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부분으로 보고 편식함으로, 성경 본래의 의미 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읽고 생각하고 해석한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이념에 따라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을 취사선택 하고, 성경의 해석과 적용까지도 편향적으로 해오고 있다. 우리 인생의 거울인 성경에 삶을 비추기보다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성경을 인용하고 사용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일부분의 성경 구절만을 선택하여 읽어 왔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파편화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성경듣기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역개정판 성경 버전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자적 의미로 ‘들으라’ 라는 단어가 101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13] Ibid,. 16.

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에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듣는가가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를 통해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폭력적인 소리를 듣고 자라게 되면 어린이들이 폭력적 인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듣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믿음은 보는 것과 느끼는 것, 체험하는 것도 아닌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만큼 듣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쉐마' 라고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5절[14]을 보면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할 때에 분명하게 '들으라'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탐꾼이 만난 이가 바로 '라합' 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합의 말고 행동이었다. 여호수아 2장 8~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 또 그들이 눕게 전에 라합이 자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14] **신명기 6장 4~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15]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위에 언급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듣는 성경의 성경적 근거는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만큼 듣는 것이 신앙인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는 어떠한가? 조병호는 통(通)성경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다섯 가지를 말한다. 첫째, 성경은 얇은 책이다. 둘째,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이다. 셋째, 성경은 1년 10번 들을 책이다. 넷째, 성경은 하나님 마음이 담긴 책이다. 다섯째, 성경은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16] 여기서 특별히 두 번째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경은 소리를 내서 읽을 책'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자들이 듣고 인간의 문자로 기록한 책이기에 그 문자를 읽고 소리 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면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스토리는 무척 다이내믹하다. 눈과 입으로만 읽어서는 100%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소리를 내어 읽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목소리를 귀로 들음으로써, 혹은 다른 이가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15] 여호수아 2장 8~11절.

[16] 조병호,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34.

이런 예는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렸을 때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들었던 옛날 이야기의 기억이 얼마나 오래가는지를 알게 된다.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조병호는 통(通)성경학교를 시작할 시기를 말할 때에 '5세에 시작해서 20세까지' 를 말한다.[17] 이 말은 5살 때부터 성경을 들려 줄 필요가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위에서 언급했던 통(通)성경의 세 번째 내용과도 연결할 수 있겠다. '성경은 1년에 10번 들을 책이다.' 성경은 들어야 하는 책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하다못해 사상교육을 할 때에도 무수히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1년에 10번은 읽어야 함을 강조한다.[18]

그러면서 조병호는 1년에 10번씩 성경을 듣기 위해 조병호는 5가지의 방법을 제안한다.[19] 성경을 쉽게 효과적으로 성경전체를 듣는 5가지의 방법 첫 번째는 '성경을 역사순 스토리로 들으라' 는 것이다. 현재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성경은 장르별로 편제되어 있기에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쉽지 않다. 그렇기에 성경을 들을 때에도 역사 순으로 재배열되어 있는 성경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대선지서 및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인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와 함께 읽을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약의 경우에는 역사서에 해당하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함께 읽을 때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그룹을 만들어 함께 들으라' 고 한다. 사람의 의지가

---

[17] Ibid,. 14.

[18] Ibid,. 35.

[19] Ibid.

약하기에 아무리 열심히 들으려고 해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혼자 힘으로는 지속성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다. 그 그룹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함께, 직장과 학교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매일 1시간씩 들으라'는 것인데, 네 번째 방법인 '속도, 볼륨을 각자에 맞게 튜닝해서 들으라'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 하겠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경제 신문의 인터넷판 2017년 10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2018년이 되면 전 세계 성인 세 명 중 두 명(스마트폰 보급률 66.5%)이 스마트폰을 시용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기준을 넘어 84.2%로 세계 13위에 위치한다고 한다.[20] 물론 스마트폰의 폐해도 있겠지만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더 큰 장점이 있다.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과 이어폰만 있으면 성경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듣는 속도와, 볼륨을 각자에게 맞추어 듣게 된다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훨씬 편하게 들을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산책 등 활동하면서 들으라'는 것이다. 내 자신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듣는 것이라 하겠다. 요즘은 일상화 된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원이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어폰을 귀에 꼽고 걸어가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인가를

[20] "전세계 3명 중 2명 스마트폰 사용자," 아시아경제 2017년 10월 17일.

듣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성경을 듣는 것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은 근거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목양함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듣게 되면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에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목회자의 설교도 잘 이해하게 된다. 목회자가 목회의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선포하는 메시지를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것을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염려일 것이다.

지난 2013년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 중에 평신도들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5%의 평신도가 본문의 해석 능력이라고 답을 했다.[21] 성도들 역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힘써 선포했음에도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고, 영향을 미쳐도 미미한 부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는 것만큼 낙심 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목회자가 성경 속의 스토리에 근거한 말씀을 선포한다는 전제하에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성도들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기에 성경을 듣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

[21] 목회와 신학 편집부, "설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와신학* (2013, 1), 66-76.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인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고 간증할 때에 성경을 읽고 듣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 하나님께선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하셨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살도록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길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큰 그림을 그리게 된다. 성경 자체의 이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자신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효과가 있다. 성경을 좀 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듣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별히 학령 전 연령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비롯하여 글을 익혀 충분히 이해할 능력이 되는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으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장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틈틈이 성경을 접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노령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겠다.

통(通)성경 묵상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된다. 현재 수많은 묵상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고, 큐티(Quiet Time/말씀 묵상)라는 이름으로 소교재가 출판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교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는 하지만 부족함이 발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다.

기존에 발행되고 있는 묵상 교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루하루 묵상하는 분량을 정함에 있어서 스토리 단위가 아닌 짧은 본문을 하루에 읽도록 한다. 그리고 묵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본문의 내용 중에서 묵상하는 자기 자신에게 와 닿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고 계속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와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편협한 사고를 하게 되며, 성경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른 적용으로 이끌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본 연구자 또한 목회의 현장에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재를 택하여 인도해 보았으나 제한된 내용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인도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중에 역사순대로 재배열하여 편집한 성경인 ‘일년일독 통독성경’에 입각한 ‘마음과 생각’을 큐티 교재로 채택하여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교재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22] 특별히 성경통독원의 원장인 조병호가 발행하는 통(通)독큐티 ‘마음과 생각’은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에 맞추어 성경

[22] 조병호, *마음과 생각 11/12*(서울: 통독원, 2017), 7.

내용의 ‘숲’과 그 울창한 숲 속의 ‘나무’들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세계 최초 유일의 성경통독 방식 묵상지이다.[23]

‘마음과 생각’이라는 묵상 교재는 ‘일년 일독 통독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구성한 큐티 교재인데, 교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분량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되어 있어 교재를 따라 계속 큐티를 했을 때 3년이면 성경 전체를 1독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묵상은 ‘통(通)성경’의 방식으로 보도록 인도한다. 이 교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재 서두에 발행인인 조병호가 제시한 ‘마음과 생각’의 활용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하루에 1장씩 말씀을 통독합니다. 본문의 ‘숲’, 즉 전체 흐름을 먼저 살피겠다는 마음으로 한 번 읽고, 더 깊은 묵상을 위해 한두 번 정도 더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때 거기서’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당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봅시다. 그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24]

이상과 같이 ‘마음과 생각’은 가장 먼저 하루에 해당하는 본문을 통독하게 한다. 그 날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교재 가운데 소개하는 본문을 읽는 과정과 더불어 ‘1년 10번 듣기’ 앱을 통해서 듣는 과정까지 병행하면 더 깊은 묵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며 찬양을 드리도록 제시된 본문과 연관된 찬송을 부르도록 하고, 본문 말씀을 읽은 후에, 그 본문이 넓게는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 큰 숲을

---

[23] Ibid.

[24] Ibid., 6.

생각해 보고, 넓게는 성경 전체에서, 좁게는 성경 각 권에서는 어떤 상황과 위치에 있는지 나무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25] 이것이 '숲보기'이다. 이어 '나무보기'로 그 숲 속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에서 한 나무를 자세히 보게 한다.[26]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삶과 성경 속의 스토리를 연결되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마음과 생각 적기'라는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은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자신의 손을 적어 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27] 그래서 해당하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기 위해 그 결단과 다짐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게 하는 것이다.[28]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슬러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 봤더니 내가 감사할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울림을 기록해 보고 결단과 다짐, 그리고 기도할 제목들을 솔직하게 적어 보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묵상기도'는 이제 묵상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 묵상했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의 변화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 하셔서 도와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다.[29]

---

[25] Ibid.

[26] Ibid.

[27] Ibid.

[28] Ibid.

[29] Ibid.

이로써 통(通)성경에 입각한 성경묵상 또한 참으로 중요한 과정임을 알게 된다. 통(通)성경의 방법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과 묵상' 을 통한 성경 묵상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하루하루를 성경을 묵상하도록 하고, 나아가 자신의 삶에 구체적인 적용까지 이끌게 함으로써 매일의 삶이 성경 가운데 거하게 하는 특별함이 있다 하겠다.

조병호가 집필한 통독 큐티인 '마음과 생각' 을 따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묵상 하는데 3년이 걸린다. 김광중이 그의 논문에서 3년간 진행되는 묵상의 전 과정을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30]

<표 2> '마음과 생각' 큐티 묵상과정[31]

월	1년차	2년차	3년차
1	창	왕하, 암, 호, 시	스, 학, 슥, 에, 잠
2	창, 출, 시	호, 욘, 왕하, 사, 시	에, 스, 느, 말, 잠
3	출, 시	사, 시	마, 막, 눅, 잠
4	출, 레, 시	왕하, 사, 시	

[30] 김광중,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서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할 때 나타나는 변화,"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61-63.

[31] 성경 각 권의 명칭은 성경약어표를 사용함을 밝힌다.

5	레, 민, 시	사, 미, 왕하, 습, 합, 나, 시	눅, 요, 행, 잠, 아, 전
6	민, 신, 시	욜, 왕하, 렘, 시	
7	신, 시	왕하, 렘, 시	행, 살전, 살후, 갈, 고전, 고후, 롬, 전
8	신, 수, 시	렘, 애, 옵, 대상, 시	
9	수, 삿, 룻, 시	대상, 대하, 시	롬, 행, 엡, 빌, 골, 몬, 딤전, 딤후, 딛, 히, 욥
10	룻, 삼상, 시	대하. 겔, 시, 잠	
11	삼상, 삼하, 시	겔, 잠	약, 벧전, 벧후, 유, 요일, 요이, 요삼, 계
12	삼하, 왕상, 시	겔, 단, 잠	

제 Ⅳ 장

회중의 상황과 통(通)성경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탐라교회 회중의 상황

탐라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주노회에 소속되어 있다. 제주지역은 총회(합동)로부터 선교지에 준하는 지역으로 선포되어 있다. 국민일보 2017년 10월 27일자 인터넷 판을 참고해 보면 통계청의 조사 결과와 함께 제주 지역 교회 목회자의 인터뷰를 싣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5년 현재 제주 지역의 개신교인 비율은 10%(5만 8258명)으로, 한국 전체 개신교인 비율(19.7%)의 절반 수준이다. 2005년 7.2%(3만 8183명)에 비해 늘었지만 대다수는 외지인 유입 때문으로 보인다.” 고 말한다.[1] 하지만 이러한 통계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주지역의 특수한 문화가 제주선교에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2018년은 1908년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입도하여 제주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10년이 되는 해이며, 4.3 사건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암울했던 구한말 시대에 가장 변방의 땅이었던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 되었다. 가난의 땅, 1만 8천의 우상이 있다는 미신과 우상의 땅인 제주도에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것이다. 나라가 망하여 일본의 식민통치의 가혹한 시대를 겪어낼 수

[1] “동아시아 선교 교두보 제주, 현지인 새신자 안 늘어 걱정,” 국민일보 2017년 10월 27일.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귀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제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면서 힘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생기를 찾는 듯했지만 4.3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다시 혼란 가운데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어진 민족상잔의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 그 때에 제주 땅은 유일한 도피처요, 구원의 땅이었다. 불행한 시대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제주에 피난을 오게 된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70년대를 지나면서 전국의 각 교단 교회들이 제주에 들어와 꾸준히 영혼구원에 힘쓰게 되었고, 제주선교 110주년이 된 2018년에는 450개 교회가 제주 땅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제주기독신문 2018년 1월 12일자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소개한다.

>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시작하는 제주에는 지난 12월31일 기준으로 35개 교단, 총 450개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보도한 36개 교단, 444개 교회에서 1개 교단이 줄고, 6개의 교회가 늘어난 수치다. 이번 통계의 근거는 제주시목사회가 2017년 발행한 '교회/교역자/장로 주소록'을 바탕으로 제주기독신문이 지난 1년 간 취재했거나 각 교단 자료를 집계한 것이다.
> 10개 교회 이상이 되는 교단(노회)별 소속 교회 수를 살펴보면 예장통합 127개 교회를 비롯해 예장합동 46개(타노회 소속 5개 포함), 기독교대한감리회가 44개, 한국기독교장로회 27개, 예장대신(백석) 23개(타지역 2개 포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총회) 23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20개, 예장고신 19개 교회, 예장합신 17개, 기독교한국침례회 12개 교회 순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제주도내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교단들을 소개하면 구세군, 그리스도의교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한국루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대한예수교오순절성회, 대한성공회, 성서침례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장로회총공회, 예장대신(수호측), 예장연합, 예장호헌 등 35개 교단이

분포돼 있다.[2]

이러한 제주지역 상황과 형편 가운데 탐라교회는 1981년 8월 31일에 상가빌딩을 임대하여 개척 설립하게 되었다. 탐라교회의 역사는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81년부터 1998년에 해당하는 때로 '개척부터 현재 교회를 건축하게 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본 연구자의 부친인 故 민종규 목사가 1대 담임교역자로 부임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하던 중에 현재 교회가 위치한 곳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1999년부터 2010년에 해당하는 때로 '새로운 변화로의 발걸음'을 걸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새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지만 국가적 위기였던 IMF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 건축하던 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고스란히 부채의 부담이 교회로 오게 되었고, 성장이 멈추고 정체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부친께서 부임 25년이 되던 해인 2006년에 갑작스럽게 소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위기가 더욱 암울한 분위기였던 중에 본 연구자가 2대 담임목회자로 부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전 25년의 역사도 가치 있고 중요한 시기였지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비전을 선포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교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2011년부터 현재 진행형인 시기로 '함께 걸어갈 새로운 30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11년에 교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함께 걸어갈 새로운 30년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교회론과 목회철학을 정립하였다. 탐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이다.

---

[2] "2018년 제주교회 450개 교회로 출발," 제주기독신문 2018년 1월 12일.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셨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운 영구비전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천국과 교회를 이루어 가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제주 땅과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이 천국으로 변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특별히 탐라교회의 영문 이니셜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5가지 핵심가치를 선포하였다.

T / Transformation for new age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
A / Adoration of God
M / Mission to the All Nations 열방을 향한 선교
R / Raising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
A / Association with Churches 교회들과의 연합

먼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라 함은 탐라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탐라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전통적인 사역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꾀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회가 중심이 되고, 공동의회와 제직회를 통하여 사역이 결정되고, 실제적인 사역은 5개의 사역팀(예배/선교/양육/사랑/관리)이 주관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구조로 전환하게 되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 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꿈꾸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올바른 예배는 사랑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이다. 예배의 모든 목적과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모든 성도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함이다.

셋째, ‘열방을 향한 선교’라 함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교회의 부흥은 전도와 선교에 생명을 거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탐라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열방에 선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 위함이다.(국내 전도/해외 협력 선교/기관 협력/구제 및 장학 사역)

넷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라 함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모델로 삼아 본받기 위해 힘써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가족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기에 여러 가지 양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다(새가족 양육 과정/제자훈련 및 사역훈련/ 성경 대학/각종 세미나 사역/다음세대 양육 사역).

마지막으로, ‘교회들과의 연합’이라 함은 교회가 연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기에 궁극적으로 교회가 속한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기를 소망하기에 이를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여 더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5가지의 핵심가치를 모아서 한 문장인 비전선언문을 만들게 되었다. “우리는 변화(Transformation)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Adoration)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Rearing)하며, 열방을 향하여 선교(Mission)하고, 교회의 연합(Association)에 힘쓴다.”

본 연구자는 2006년 4월, 탐라교회에 담임목회자로 부임하여 12년간 섬기고 있다. 부임할 당시 교회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난제들이 있었다. 첫째, 부친이신

전임 담임목사의 갑작스런 부재로 인하여 교회의 분위기가 말할 수 없이 가라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아들은 연구자가 봐도 존경스러운 인품과 실력을 갖추신 담임목사의 소천은 성도들로 하여금 큰 충격을 갖게 했고, 그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었다. 둘째, 현재 교회가 위치한 곳에 교회를 건축할 때에 국가적 위기였던 IMF 시기와 맞물려 건축을 담당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과도한 부채를 고스란히 교회가 껴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점이었다. 그러다 보니 양육과 선교 사역의 중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부채에 대한 부담만이 아니라 그 부담이 다음세대의 열악한 양육 환경으로 이어져 유급사역자를 세우지 못하여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과 선교사역이 위축되어 명맥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말씀의 부재였다. 연구자가 담임교역자로 부임할 때가 지난 25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끼치셨던 담임교역자의 자리가 공석인지 3개월 정도가 성도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난제들을 보면서 본 연구자는 다음의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첫째는 성경에 근거한 말씀 선포이고, 둘째는 성경을 통한 양육 과정의 세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다. 오늘의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말씀이 있기에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분별하고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 버리기도 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하고 싶은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닌 성경의 수많은 선포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선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디모데후서 4:2)고 한 것처럼 어떠하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담임교역자로 부임할 때부터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힘써왔다.

또한, 성경에 기초한 양육 과정의 세팅에 힘을 썼는데, 양육과정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특별히 두 가지의 대상을 구분하였다. 하나는 다음 세대였고, 다른 하나는 성인(장년) 세대였다. 다음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세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고, 성인 세대들 역시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기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신구약 파노라마’라든지, ‘성경 대학’이라든지, ‘제자훈련’ 및 ‘사역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힘써 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는 차츰 안정화 되어갔고,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까지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교회 창립 30주년의 해인 2011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시행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세워가며 ‘지나온 30년, 함께 걸어갈 새로운 30년’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주일예배에 장년 90~100명 정도와 다음세대가 학령 전과 학령기를 포함하여 40~50명이 예배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특별히 청장년층 성도들이 많아져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음세대들이 많아져 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주일 예배를 1부와 2부로 구분하게 되었고,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시스템에 변화를

주어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는 등 다음 세대에 사역의 역량을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다음 세대와 장년 성도들의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되었고 그 과정으로 새롭게 시도한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바로 통(通)성경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탐라교회의 통(通)성경 프로그램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말할 때에 믿음은 곧 관계라고 말한다. 관계의 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성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제대로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다. 레너드 스윗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관계들을 바르게 세워 나갈 필요성을 말한다.[3] 개 교회에서 진행하는 통(通)성경 프로그램 역시 그런 다양한 관계들을 새롭고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통(通)성경 새벽기도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자가 통(通)성경의 방법론을 적용하기 전에 새벽기도회를 인도할 때에는 해당하는 날짜에 정리되어 있는 묵상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인도하였는데, 물론 그 가운데에도 은혜가 있지만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뭔가 부족함을 느끼던 중에 조병호 박사로부터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을 소개받게 되었다. 이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로,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최소한

[3] 레너드 스윗, *관계의 영성* (서울: IVP, 2014), 6-7.

1년에 성경을 1독은 하자는 마음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교재 역시 통(通)성경의 방법에 입각하여 역사순대로 성경을 배열하여 1년에 성경을 일독을 하고 묵상케 하였다. 부록의 표(표1~표12)를 통해 월별로 구분된 본문 및 제목을 볼 수 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1년 1독 큐티성경통독'을 가지고 새벽기도회 때마다 정해진 본문을 함께 소리 내어 읽고 간략해서 통(通)포인트와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기도하였다. 그러다가 2015년 초에 마무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통독원에서 발간하는 통독 큐티 묵상지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지금까지 새벽 시간을 채우고 있다. '1년 1독 큐티성경통독'과는 다르게 '마음과 생각'은 성경의 역사 순대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고 묵상케 하는 자료로서 3년이면 성경 전체를 한 번 묵상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자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 통(通)성경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는 타임테이블은 다음과 같다.

<표3> 탐라교회 통(通)성경 새벽기도회 진행 타임 테이블

시간	내용	진행시간	총시간
04:50~05:00	BGM	10분	10분
05:00~05:02	신앙고백	2분	22분
05:02~05:07	찬송	5분	
05:07~05:15	성경통독	8분	
05:15~05:20	5분 메시지	5분	
05:20~05:21	적용기도	1분	
05:21~05:22	주기도문/폐회	1분	

통(通)성경학교

통(通)성경 사역을 새벽기도회부터 시작한 이래, 2017년이 되어서 또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통(通)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전부터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대학과 같이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성도들이 통(通)성경의 생각과 기준을 함께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매주 15~25명 정도의 인원들이 참여하면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다. 통(通)성경학교를 진행하는 타임테이블은 다음과 같다.

<표4> 탐라교회 통(通)성경학교 진행 타임테이블

시간	내용	진행시간	총시간
19:20~19:30	BGM	10분	10분
19:30~19:32	합심기도	2분	60분
19:32~19:37	찬송	5분	
19:37~19:40	통성경노래 제창	3분	
19:40~19:45	5분 복습	5분	
19:45~20:25	주별 진도	40분	
20:25~20:30	광고/주기도문/폐회	5분	

통(通)성경학교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는 믿음과 고백을 바탕으로 성경 전체를 누구나 '이야기' 로 말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된 과정이다. '통성경 포뮬라' 의 7단계 과정[4]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4] '통성경 포뮬라'(Formula for Tongbible)는 다음의 7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pre-STEP

나라 이야기를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로 전달하는 Family School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통(通)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과정이다.[5]

본 연구자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통(通)성경학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통성경 포뮬라’의 전체 단계를 다 진행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개괄적인 내용을 전달함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33주에 걸쳐 STEP 4(성경을 통한 기도)와 STEP 5(FAMILY SCHOOL)을 제외한 성경 스토리에 집중하여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33주 동안 진행했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표5> 탐라교회 통(通)성경학교 커리큘럼

구분	날짜	내용	비고
1강	2017. 4. 19	그 순간 이야기 1	
2강	2017. 4. 26	그 순간 이야기 2	
3강	2017. 5. 3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영성	
4강	2017. 5. 10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1	통성경 7개 질문
5강	2017. 5. 17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	
6강	2017. 5. 31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3	
7강	2017. 6. 7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4	
8강	2017. 6. 14	하나님의 마음 알기 1	1-4마당
9강	2017. 6. 21	하나님의 마음 알기 2	5-10마당
10강	2017. 7. 5	하나님의 마음 알기 3	11-15마당
11강	2017. 7. 12	하나님의 마음 알기 4	16-20마당
12강	2017. 7. 19	성경 줄기 1	1-3

1-‘그 순간’이야기 / 2. pre-STEP 2-성경과 영성 / 3. STEP 1-제사장나라 하나님 나라 : 7 Question / 4. STEP 2-1시간 하나님의 마음 알기 / 5. STEP 3-1시간 성경줄기 / 6. STEP 4-성경을 통한 기도 / 7. STEP 5-Family School.

[5] http://www.tongbible.net/ 소개자료(2018년 3월 1일 확인).

13강	2017. 7. 26	성경 줄기 2	4-6
14강	2017. 8. 2	성경 줄기 3	7
15강	2017. 8. 9	성경 줄기 4	8
16강	2017. 8. 16	성경 줄기 5	9
17강	2017. 8. 23	성경 줄기 6	10-11
18강	2017. 8. 30	성경 줄기 7	12-13
19강	2017. 9. 6	성경 줄기 8	14
20강	2017. 9. 27	성경 줄기 9	15
21강	2017. 10. 11	성경 줄기 10	16
22강	2017. 10. 18	성경 줄기 11	17
23강	2017. 11. 1	성경 줄기 12	18-19
24강	2017. 11. 8	성경 줄기 13	20-21
25강	2017. 11. 15	성경 줄기 14	22-24
26강	2017. 11. 22	성경 줄기 15	25
27강	2017. 11. 29	성경 줄기 16	26
28강	2017. 12. 6	성경 줄기 17	27
29강	2017. 12. 13	성경 줄기 18	28
30강	2017. 12. 20	성경 줄기 19	29
31강	2018. 1. 3	성경 줄기 20	27-29
32강	2018. 1. 10	성경 줄기 21	29-30
33강	2018. 1. 24	성경 줄기 22	31-40

통(通)성경 프로그램 참여자 분석

인터뷰 개요

통(通)성경 프로그램 참여자 심층 인터뷰는 탐라교회에서 33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했던 ‘통(通)성경학교’와 매일 새벽마다 진행되는 ‘통독새벽기도회’에 참여한 5명을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본 ‘통(通)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는 50대 후반의 남성 장로를 비롯하여 50대 초중반의 여성 권사 2명, 40대 후반의 여성 집사, 40대 초반의 여성 성도이다. 특별한 점은 50대 후반의 남성 장로와 50대 초반의 여성 권사는 부부로 인터뷰에 참여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제주 지역이며, 인터뷰 방법은 인터뷰의 질문 내용을 가지고 일대일 대면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시기는 2018년 1월 중에 진행하였다.

‘통(通)성경 프로그램’ 부부 참여자 인터뷰 내용

탐라교회에서 진행한 ‘통(通)성경 프로그램’ 중에 부부로 참여한 50대 후반의 남성 장로와 50대 초중반 여성 권사의 인터뷰 내용으로, 남성 장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40년 이상이 된 분으로 본 연구자가 탐라교회 위임목사가 될 때에 시무장로로 장립 받아 교회를 섬기고 있고, 여성 권사는 교회 창립 초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5년 이상 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이라 할 수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질문과 답은 아래와 같다.

A. 통(通)성경 원리에 대한 인터뷰
a. 성경을 통독할 때에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읽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각 권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성경 66권 전체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남편) 그러한 생각에 동의한다. 성경 각 권으로만 봤을 때에는 성경 속의 역사의 흐름이 끊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통(通)으로 보았을 때에는 각각의 역사가 연결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아내) 나도 동의한다.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마치 부분적인 것들로 흩어져 있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좋았던 것 같다/
b. 성경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독할 때에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읽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역시 동의한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역사의 스토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c. 성경을 통독할 때에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부인) 동의한다. 이전에 제자훈련에 참여하면서 과제였던 성경을 읽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기 위해서 힘썼던 면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에 가졌던 생각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읽었을 때에는 성경이 눈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었다. 그러면서 가졌던 생각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기 위한 통성경의 방법이 참 좋았던 거 같다.

B. 통(通)성경 방법론과 관련된 인터뷰
a.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성경 전체를 읽는 성경통독을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 (남편) 부분적으로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읽은 것은 1번 정도 되는 것 같다. (아내)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는 2번정도 읽었다.
b. 성경 전체를 장르별로 배열되어 있는 기존 성경을 읽는 통독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와 통(통)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대답함) 수치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확실히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이해도를 보이는 것 같다.
c. 성경을 귀로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보셨으며, 성경을 듣는 것에 대한 장점은 무엇일까요?
: (남편) mp3로 들을 수 있는 ‘디지털 바이블’로 지금도 듣고 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여러 스토리의 흐름이 쉽게 이해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아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성향이 그런지 몰라도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편리성은 있는 것 같지만,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d. 성경통독과 성경듣기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을 말씀해 주십시오!
: (남편) 무조건 성경을 열심히 봐야겠다는 생각만 있다. 나이도 좀 되어 가니 자꾸만 잊어 버리는 경향이 많다. 성경 세미나와 같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도 기회가 되는대로 잘 참여하여서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겠다는 결단을 해 본다.
(아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깨달으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성경 속의 스토리가 역사 순서대로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예전에는 성경을 볼 때에도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사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배우다 보니까 그 증거들을 통해서 더 이상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100%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수준으로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에 더욱 읽고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배워가고 익혀가고자 한다.

C. 통(通)성경 프로그램 관련된 인터뷰

a. 통(通)성경학교와 통독새벽기도회에는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었으며 참여하신 빈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남편) 목회자가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장로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자연스럽게 통(通)성경학교든 통독새벽기도회든 90% 이상 참여하게 되었다.

(아내) 기존의 수요일 예배 시간에 진행하게 되어 통성경학교에는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고, 특별히 통(通)성경학교에는 90% 이상 참여한 것 같다.

b. 통(通)성경학교에 참여하면서 체험하게 된 장점과 솔직한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 (남편) 말씀의 이해가 한층 쉬워졌고, 성경의 역사와 흐름이 이해가 되었으며,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잘 연결이 되는 것 같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으며, 통성경학교에 참여하면서 반복하며 불렀던 통성경노래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한 번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 같다. 시간의 제약의 더불어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100%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아내) 장점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는데, 본인에게는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후에는 핵심적인 내용과 함께 계속 공부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c. 통독새벽기도회는 역사 순서대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살피는 새로운 묵상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편) 사실 하루에 한 장을 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읽어가는 성경 본문이 역사와 시대 순으로 연결된다는 느낌은 적은 것 같다. 오히려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다.

D. 말씀 이해에 대한 인터뷰

a. 통(통)성경 방법들을 통하여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에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남편) 공부하고 익힌 것들을 통해서는 잘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다. 특별히 성경의 이해가 정말 실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았고, 성막의 개념이라든지, 그 순간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고 느끼게 된 것이 크다 하겠다.
(아내) 지금까지는 잘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웃음).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에 그 순간 스토리를 들었을 때가 제일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것 같다.
b. 통(通)성경학교를 통해서 공부했던 다양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남편) 역사의 시대 흐름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통(通)성경학교를 40주 가까지 진행해 왔듯이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1번에 다 해결할 수 없기에 통(通)성경노래를 반복하며 불렀듯이 전체적인 흐름을 반복해서 배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잘 배울 수 있게 해 주고, 잘 듣게 해 주어 감사한 마음이 크다.
(아내)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세계사 시간이나 배울 수 있는 5대 제국의 이야기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런 역사적 사실과 함께 성경을 배우게 되니, 성경이 그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며, 내 믿음이 견고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울러 성경을 볼 때나 말씀을 듣게 될 때에도 이해함에 있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남편과 함께 성경지리답사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통(通)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된 말씀이 더욱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통(通)성경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내용

탐라교회에서 진행한 ‘통(通)성경 프로그램’ 에 참여한 참석자 중 인터뷰를 진행한 여성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으로서 야간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권사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질문과 답은 아래와 같다.

A. 통(通)성경 원리에 대한 인터뷰
a. 성경을 통독할 때에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읽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각 권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성경 66권 전체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그러한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성경을 통(通)으로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보게 되면서 쉽게 이해가 되고, 구약과 신약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균형 있게 보게 되면서 어느 한 쪽이 치우치지 않게 되었다.
b. 성경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독할 때에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읽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개인적으로 세계사를 좋아해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 중간사 시대의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역사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 간다고 했을 때에 역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읽어가면서 더 쉽게 이해가 되고, 특별히 성경지리답사 여행을 다녀오면서 성경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유익이 있었다. 조병호 박사의 강의도 CBS방송을 통해서 보았는데, 강의를 통해서 스토리가 역사와 함께 그려지는 효과가 있었다.
c. 성경을 통독할 때에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B. 통(通)성경 방법론과 관련된 인터뷰
a.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성경 전체를 읽는 성경통독을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의 순서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는 것은 4~5번 정도 읽었던 것 같고, 권별로 읽는 편차가 좀 다른 것 같다. 예를 들어 시편은 참 많이 보았다.
b. 성경 전체를 장르별로 배열되어 있는 기존 성경을 읽는 통독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와 통(통)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 사실 기존의 성경 읽는 방법으로 읽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 연결이 되지 않아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전에 비해서 수치로 말하지만 80% 이상 말씀이 이해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과, 성경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는 안목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쉽게 느껴지는 도움을 받았다고 하겠다.
c. 성경을 귀로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보셨으며, 성경을 듣는 것에 대한 장점은 무엇일까요?
: 이전에 CD 나 테이프로 들어보기는 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귀로 듣는

것은 오감을 이용해서 성경을 접해가는 것이기에, 그 편리성에 있어서는 단연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귀로는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d. 성경통독과 성경듣기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조병호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 말씀의 숲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보라고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습관을 기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다. 성경을 듣더라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결심을 해 본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더라도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포와 신약의 성취된 내용들을 연결하여 통을 보려는 노력을 해 보려고 한다.

C. 통(通)성경 프로그램 관련된 인터뷰
a. 통(通)성경학교와 통독새벽기도회에는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었으며 참여하신 빈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목회자의 권면이 있었고, 친구가 CBS방송에 나오는 조병호 박사의 강의를 한 번 들어보라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고, 야간에 직장에서 일을 하느라 많이 참석해서 듣지는 못했지만 방송과 녹화된 강의를 보면서 참여하게 되었다.
b. 통(通)성경학교에 참여하면서 체험하게 된 장점과 솔직한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다른 많은 느낀 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점 말고도 일단 성경이, 말씀이 재미있게 다가온 것이 큰 장점이 아닐까 싶다. 강의에 참여할 때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1시간 강의 시간이 10분 정도 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참여하게 되면서 성경을 보는 안목이 달라짐을 느끼게 된다. 쉽고 재미있는 말씀, 예를 들면 지루하게 느껴졌던 레위기 말씀도 이해를 하고 보니 쉽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c. 통독새벽기도회는 역사 순서대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살피는 새로운 묵상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새벽기도회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빠지지 않는 편인데, 요즘 교회에서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선지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묵상하면서 동시대 선지자들의 선포와도 연결이 되다보니까 확실히 시야가 넓어진 것 같고,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도 생기는 것 같고, 좀 더 차원이 다른 점이 느껴진다.

D. 말씀 이해에 대한 인터뷰
a. 통(통)성경 방법들을 통하여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에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일단 이해가 쉽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특별히 그 순간 이야기라든지, 20개 마당, 40개 줄기 통해서 성경의 큰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성경지리답사 여행을 직접 다녀오게 되면서 성경 속의 스토리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b. 통(通)성경학교를 통해서 공부했던 다양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통(通)성경의 방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성경을 볼 때에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보는 부분적인 안목만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통(通)성경의 방법으로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고, 신구약 성경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사람 사는 시대는 같다는 느낌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시대나 요즘의 시대나 다르지 않다는 시간과 공간을 통으로 보게 되는 관점도 생기게 되었다. 아울러 말씀을 더욱 보고 공부하면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통(通)성경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내용

탐라교회에서 진행한 ‘통(通)성경 프로그램’ 에 참여한 40대 중후반의 여성의 인터뷰 내용으로, 청소년기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30년 정도가 된 신실한 여성 집사이다. 직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항상 응급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함에도 열심히 참여하였는데, 인터뷰를 진행한 질문과 답은 아래와 같다.

A. 통(通)성경 원리에 대한 인터뷰
a. 성경을 통독할 때에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읽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각 권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성경 66권 전체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그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보다 보니까 퍼즐 조각처럼 그림이 중구난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퍼즐이 있어야 할 자리로 꿰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통성경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말씀이 자기 자리로 맞춰져 가는 희열이 있었다. 조각으로 알던 것들이 움직이면서 점점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이해와 더불어 원인과 결과가 맞아가는 희열이 느껴졌다. 이전의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에 비하여 유익했던 시간이었기에 오히려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시간들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른다.;

b. 성경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독할 때에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읽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 않는가? 공부하게 되면서 역사의 순서대로 보고 공부하는 것이 순리로 느껴진다. 전체의 흐름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우니까 어렵지 않고 부담도 없이 배우게 된 것 같다.
c. 성경을 통독할 때에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그 순간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신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것이 보여 지니까 감동으로 다가왔다. 하나님이 생각 없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의 휘장 하나를 만드시더라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로 연결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하고 벅차게 느껴졌다.

B. 통(通)성경 방법론과 관련된 인터뷰
a.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성경 전체를 읽는 성경통독을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 10대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20대 후반까지 정말 열심히 읽어서 10번 이상 읽었던 것 같다. 1년에 1번을 읽어야지 하면서 습관적으로 읽기는 했고, 단편적으로 읽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들게 된 생각은 내가 왜 이렇게 읽어야 할지, 체계 없이 여기저기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알기는 아는데 그저 의미 없이 읽어가지 않았나 생각된다.
b. 성경 전체를 장르별로 배열되어 있는 기존 성경을 읽는 통독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와 통(통)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 개인적으로 묵상지(생명의 삶)를 통해 큐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의 배경 설명과 원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통(通)성경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서 머리와 마음속에 성경의 큰 그림과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c. 성경을 귀로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보셨으며, 성경을 듣는 것에 대한 장점은 무엇일까요?
: 예전에는 Tape나 CD, mp3 를 통해서 들었던 적은 있는, 특별하게 일부러 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물론 장점들이 있겠지만 성우가 같은 톤으로 읽어 주는 것은 오래 듣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d. 성경통독과 성경듣기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영적의 회복이든, 내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이며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내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는 내가 방향을 말씀으로 틀어서 해결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성경 당시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스토리로 보면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C. 통(通)성경 프로그램 관련된 인터뷰
a. 통(通)성경학교와 통독새벽기도회에는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었으며 참여하신 빈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볼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고, 성도의 직분으로서 갖게 되는 의무감도 있었으며, 목회자의 추천과 권면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직장의 유동성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70% 이상 열심히 참여했다.
b. 통(通)성경학교에 참여하면서 체험하게 된 장점과 솔직한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 통(通)성경의 장점은 다 동의하고, 무엇보다 성경의 전체적인 줄기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성경의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막연했던 조각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큰 작품을 완성하게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특별히 신구약 중간사 강의를 통해 5대 제국을 공부하게 되면서 성경의 스토리와 연결되어 성경이 진짜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확실하게 믿어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한 마디 더 하자면 본의 아니게 참여할 수 없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고, 다음에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D. 말씀 이해에 대한 인터뷰
a. 통(통)성경 방법들을 통하여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에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머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알고 있고, 배운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 훨씬 이해가 쉽고, 연결이 잘 되어 가는 것 같다. 그 순간 이야기를 이해한 바를 이야기해 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질 때에, 이전까지 진행되어 왔던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나 자신에게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었는데,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절로 어린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짐이 덜어져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자유에 대한 시각이 확장되어 감을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휘장의 이미지가 보여졌다.
b. 통(通)성경학교를 통해서 공부했던 다양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하다 하겠다. 이제는 성경을 읽어도 막연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성경을 보는 도구가 한 가지가 있었다면 통(通)성경의 원리와 방법론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도구가 열 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 이해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성경 묵상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통(通)성경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내용

탐라교회에서 진행한 '통(通)성경 프로그램' 에 참여한 40대 초반의 여성 성도의 인터뷰 내용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 왔고, 주일학교 이후에 교회 안에서 진행되었던 성경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여성 성도라고 하겠다. 인터뷰를 진행한 질문과 답은 아래와 같다.

A. 통(通)성경 원리에 대한 인터뷰
a. 성경을 통독할 때에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읽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각 권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성경 66권 전체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하나의 흐름과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있어서 중요하고, 그것을 알아야 그 안에 해당하는 나무에 해당하는 나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에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 동안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거나 들어 본적이 없어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관점이라 하겠다.
b. 성경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독할 때에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읽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성경의 목차가 역사 순서대로 배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 역사 순서대로 배열하여 읽게 되면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c. 성경을 통독할 때에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성경을 읽을 때에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노래를 부르며 반복하다보니

외워지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자체가 성경의 각 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제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통(通)성경 노래를 통해서 반복해서 불러보면서 자연적으로 외워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

B. 통(通)성경 방법론과 관련된 인터뷰
a.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성경 전체를 읽는 성경통독을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 일반적인 방법으로 4~5번 정도 해 본 것 같다.
b. 성경 전체를 장르별로 배열되어 있는 기존 성경을 읽는 통독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와 통(통)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 비율보다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도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생각해 보건데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감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 성경의 사건이나 구절과 같은 것을 많이 알게 되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는 부족함을 느낀다. 이 점에 있어서 통(通)성경의 방법은 기존의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보완되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하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인데, 그 순간에 대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제사장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전체적인 흐름과 관점을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c. 성경을 귀로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보셨으며, 성경을 듣는 것에 대한 장점은 무엇일까요?
: 1년 10번 성경듣기로 들어보았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보다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내기에는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도 편하게 말씀을 접하게 되는 편이성의 장점이 있는 것 같다.
d. 성경통독과 성경듣기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역사적인 흐름과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다. 나도 더 성경을 읽고 통성경의 원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우고 읽혀서 내 자녀를 비롯한 다음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C. 통(通)성경 프로그램 관련된 인터뷰
a. 통(通)성경학교와 통독새벽기도회에는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었으며

참여하신 빈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듯이 성도로서의 의무감으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참여해 보고 나니 참여하지 않았다면 후회가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 거의 100% 열심히 참여했다.
b. 통(通)성경학교에 참여하면서 체험하게 된 장점과 솔직한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일반적인 장점들, 즉 말씀의 이해가 쉬워졌고, 성경의 역사와 흐름이 이해가 되며, 신구약 말씀이 연결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중간기와 5대 제국에 대한 스토리를 배우게 되면서 역사와 성경이 연결이 되어, 성경을 큰 그림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확실하게 세우게 된 계기가 되었고, 40개 줄기의 내용을 배우게 된 것이 전체적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맥(포인트)이 잘 잡힌 것 같은 느낌이었고, 구약과 신약의 처음부분도 그렇지만 역사와 성경이 기록된 것과 맞물려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었고, 룻기를 배울 때에는 기존에 들어본 적이 없는 배경적인 부분들(종교 세력들이 형성되는)을 새롭게 듣게 되고 배우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배우게 되어 참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면 정해진 짧은 시간에 다루다 보니 충분히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D. 말씀 이해에 대한 인터뷰
a. 통(통)성경 방법들을 통하여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에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배운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잘 연결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이전에는 성경이 구약은 오실 메시야, 신약의 오신 메시야에 대한 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순간 스토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종료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관점이 동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단순한 개념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포인트로 보게 되는 특별함이 있었다. 통(通)성경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순간 이야기로 시작하게 된 것이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b. 통(通)성경학교를 통해서 공부했던 다양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매우 유익하다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성경이 그저

하나의 전설과 같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것이기에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익한 도구가 된 것 같다.

결과 분석

통(通)성경 원리에 대한 결론

인터뷰 참여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그들이 통(通)성경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성경을 부분만이 아닌 전체와 함께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의 역사의 흐름이 끊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전체적인 관점, 즉 통(通)성경 원리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에는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들이 연결되어서 마치 각각의 퍼즐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가면서 멋진 작품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면서 큰 희열을 느끼게 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의 흐름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성경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닌, 통으로 보게 되고, 구약과 신약 또한 따로 구별하지 않고 균형 있게 보게 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체적인 숲과 부분적인 나무를 함께 봄으로써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겠다.

둘째, 성경은 수많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기에 역사 순서대로 스토리를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분들 중에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역사를 이야기 할 때에 ‘순리’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울 때 성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 안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다. 예를 들면, 중간사 시대와

5대 제국에 대한 스토리 말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읽어가게 되면 이해가 쉬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 근거한 확실히 사실인 스토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배터리 없는 휴대폰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 순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록부터 요한계시록의 기록까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전히 드러내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가슴 벅찬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특별히 통(通)성경노래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며 부르게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점이 좋았다는 평가를 보게 된다.

통(通)성경 방법론에 대한 결론

인터뷰에 참여한 분들의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모든 참여자들이 기존에 장르별로 배열되어 있는 성경을 최소한 1번 이상은 많이는 10번 이상까지 통독해 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존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답변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참여자는 습관적으로 10번 이상 읽기는 했지만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 의미를 모른 채 읽었다고 고백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通)성경의 방법, 즉 성경읽기와 성경듣기, 성경묵상과 같은 통(通)성경 원리에 입각한 방법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에는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상당히 상승됨을 보게 되었다. 어떤 참여자는 머리와 마음속에 성경의 큰 그림과 이미지가 그려지게 되면서 성경이 쉽게 느껴진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까지 보게 되었다. 아울러 통(通)성경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기존의 방법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에 느꼈던 부족함이 상당히 보완되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대답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결과는 통(通)성경 방법 중 성경 듣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듣기’의 편리성이라는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보다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느끼기에 다소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대하고, 읽고 듣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통(通)성경 프로그램에 대한 결론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통(通)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보았을 때 대부분이 목회자를 비롯한 타인의 추천과 성도로서의 의무감에 따라 참석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인터뷰 결과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여하게 된 비율 역시 최선을 다해 참여했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또한 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통성경의 개념을 만들고 전하였던 조병호 박사의 강의를 듣고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참여하게 된 이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은 통성경학교에 참여하면서 느끼게 된 장점과 생각을 말할 때에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온다는 점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실제적인 예로, 강의에 참여하면서 1시간이라는 시간이 10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는 소감을 듣게 되었다. 아울러 성경의 역사와 흐름이 이해가 되며,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장점과 함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새로워졌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고, 성경과 역사의 확실성에 근거한 개념이 생기게 되면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 지는 것 같다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있다 보니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참여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쉽고, 단회적인 프로그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까지 의지를 피력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통독새벽기도회에 참여한 이의 인터뷰도 통(通)성경학교를 참여한 이들의 인터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통(通)성경 원리에 입각한 묵상 방법이기에 통독새벽기도회에 참여한 이들이 느끼게 된 것도 이전에 어렵게 느껴졌던 선지서라 할지라도 묵상하면서 동시대에 활동한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성경 속의 시대를 통해 현재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특별한 점이 있다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교회 안에서 진행되었던 통(通)성경학교와 통독새벽기도회라는 시간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하게 되는 유익을 제공할 수 있겠고, 또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익한 통로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성경의 전체적인 줄기를 볼 수 있기에 성경의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막연했던 조각조각으로 흩어진 이야기들이 하나가 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큰 작품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20개 마당과 40개의 성경 줄기를 통해서 성경의 숲과 나무를 정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히는 유익이 있다 하겠다.

통(通)성경을 통한 말씀 이해

본 연구자는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이 통(通)성경의 원리와 방법에 입각하여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별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자신이 이해하는 바를 설명해 줄 수 있겠는지를 물었을 때에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 순간' 이야기라든지, '성막의 개념과 제사의 개념' 이라든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의 의미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입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때에 강의를 진행한 자로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100% 만족하는 것은 성경이 실제적 사건에 근거한 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교회와 목회자들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볼 때에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마음으로 보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通)성경의 원리와 통(通)성경의 구체적인 방법인 성경통독, 성경듣기, 통(通)성경묵상을 통하여 성경을 살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말씀하셨으며, 당시 세상을 주름잡았던 5대 제국인, 앗수르(앗시리아), 바벨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성경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이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성경을 읽고 대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읽어갔던 이 전의 모습과는 달리, 통(通)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통해 성경을 보는 도구가 더 많아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스펙트럼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된다. 특별히 성경이 그저 하나의 전설이나 막연한 스토리가 아니라 5대제국과 중간사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실제적 역사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통하여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확증하게 되기에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겠다.

제 Ⅴ 장

결 론

요약과 평가

지금까지 통(通)성경이 회중의 말씀 이해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았다. 통(通)성경이 회중의 말씀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전체보다 부분에 집중하고, 큰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기 보다는 나무에 집중하여 세밀한 부분에 관심을 갖는 모습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통(通)성경의 원리와 더불어 그 원리에 입각한 통(通)성경 방법, 즉 성경통독, 성경듣기, 통(通)성경 묵상의 방법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지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 통(通)성경은 매우 유용하고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도구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별히 통독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하루의 한 장 말씀을 소리 내어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결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통(通)성경학교를 통하여 배웠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 큰 유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과 제언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난 지금 개신교 교회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최윤식은 변화하는 시대의 중심에 선 한국 교회들과 한국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쉽지 않음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갖게 될 몇 가지 걱정을 말한다. 첫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는 것이다. 둘째, 세대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됨에 따른 걱정이 커진다는 것이다. 셋째,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걱정이 커진다는 것이다. 넷째, 연금제도의 불안함에 따른 걱정이 커진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회가 부도가 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는 것이다.[1] 쉽지 않은 교회적 상황과, 성도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명확한 기준은 성경 속에 있다 하겠다.

500년 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외쳤던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오직 성경'을 외쳐야 하는 것은 종교개혁 당시의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명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비롯한 다원주의의 도전,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할 때이다. 그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삶 속에서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떤 이는 물질이면 된다는 생각에

---

[1]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113-159.

물질중심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이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에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이는 건강한 것이 최고라는 생각에 오로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조병호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독일 비텐베르크 대회의 강사로서 지금 우리는 21세기 종교개혁자들로서 이렇게 다시 외쳐야 함을 강조한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오직 모든 성경을, 오직 모든 민족이, 오직 모든 가정에서 다섯 살부터, 오직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2] 세상은 물질, 권력, 명예, 건강 등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따르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우선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모든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 근거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먼저로는 통성경의 원리와 방법론이 성도들의 말씀 이해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통성경의 원리인 성경을 볼 때에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는 것과 성경 전체를 역사 순으로 재배열하여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보는 것[3]을 통하여 성경을 보는 안목이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열리는 계기가 됨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병호가 말했던 통(通)의 방법론을 통하여 성경이 과거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재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하겠다. 성경

---

[2] 조병호, *통바이블*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7), 68.

[3]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6-17.

속의 삶의 이야기와 우리 삶의 이야기를 연결하여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여부까지도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적용 포인트까지 열리게 되는 효과가 있다 하겠다.

조병호가 통(通)성경과 함께 '통(通)성경화' 까지 말한 것을 보면 첫째, 성경은 얇은 책이며, 둘째,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며, 셋째, 성경은 1년에 10번 통독할 책이며, 넷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며, 다섯째, 성경은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모든 민족적인 책이라고 했다.[4] 이러한 통성경화를 개 교회에서 이루어가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자가 섬기는 교회의 2018년 표어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외쳤던 이들처럼 다시 한 번 성경부흥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통(通)성경 프로그램들이었다. 자연스럽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과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이상 성경이 어렵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삶과 가정, 일터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 주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 즉 종합적으로 볼 때 통(通)성경 프로그램들이 성도들의 말씀 이해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통(通)성경 프로그램 말고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많은 성경공부 프로그램, 제자훈련과 같은 양육훈련 프로그램,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배와 기도회들, 심지어 눈과 귀를 열면 홍수처럼 쏟아지는 목회자의 설교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4] Ibid., 10-11.

난제들이 있다. 그것은 중구난방의 모습으로 흩어져 있는 성경 속의 스토리를 연결해 가는 작업이다.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를 가지고는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본 연구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통(通)성경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의 인터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성경이 쉽게 느껴지고,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성경을 통(通)으로 이해하게 되는, 즉 성경을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나라를 통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병호의 주장[5]이 실제적인 통(通)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다음세대들에게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개념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하여 개 교회에서 '통(通)성경화' 와 '통(通)성경 프로그램' 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5] Ibid., 15.

부록 1.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1월 성경 범위 및 제목[6]

1월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1	창 1~2장	천지창조-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
2	2	창 3~5장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계획
3	3	창 6~9장	노아 홍수-하나님의 눈물
4	4	창 10~11장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지는 민족
5	5	창 12~14장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람의 순종
6	6	창 15~17장	아브람의 기다림
7	7	창 18~21장	복의 통로 아브라함
8	8	창 22~24장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
9	9	창 25~27장	이삭의 양보하는 삶
10	10	창 28~30장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
11	11	창 31~33장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
12	12	창 34~36장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13	13	창 37~38장	요셉의 고난과 꿈
14	14	창 39~41장	총리 요셉
15	15	창 42~44장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16	16	창 45~47장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17	17	창 48~50장	야곱의 유언과 죽음
18	18	출 1~2장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
19	19	출 3~4장	하나님의 모세 설득
20	20	출 5~7장	모세와 바로의 협상 시작
21	21	출 8~10장	모세의 설득과 하나님의 기적
22	22	출 11~13장	유월절을 기념하라
23	23	출 14~15장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6]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1권(서울:도서출판 통독원, 2014), 6.

24	24	출 16~18장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공급
25	25	출 19~20장	시내 산에서 받은 십계명
26	26	출 21~23장	공동체를 위한 삶의 기초
27	27	출 24~27장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성막
28	28	출 28~29장	제사장 직분의 위임
29	29	출 30~31장	하나님께 올리는 성물
30	30	출 32~34장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모세의 기도
31	31	출 35~38장	풍성한 자원과 헌신

부록 2.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2월 성경 범위 및 제목[7]

2월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32	출 39~40장	성막의 완성과 봉헌
2	33	레 1~5장	더 깊은 만남을 위한 다섯 가지 제사 절차
3	34	레 6~7장	제사의 규례
4	35	레 8~10장	새로운 리더십
5	36	레 11~13장	건강을 위한 배려
6	37	레 14~15장	생명을 위한 배려
7	38	레 16~17장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
8	39	레 18~20장	거룩한 사랑
9	40	레 21~22장	공동체를 돌보는 제사장
10	41	레 23~25장	아름다운 절기문화
11	42	레 26~27장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
12	43	민 1~2장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 편성-약속의 성취
13	44	민 3~4장	구별된 레위 지파 계수
14	45	민 5~6장	구별과 헌신

[7] Ibid., 7.

15	46	민 7~8장	열두 지파가 드린 예물
16	47	민 9장~10:10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
17	48	민 10:11~12장	시내 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진군
18	49	민 13~14장	가나안 정탐과 출애굽세대의 선택
19	50	민 15~17장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20	51	민 18~19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
21	52	민 20~21장	가나안에 갈 수 없게 된 모세
22	53	민 22~25장	하나님 군대의 명성
23	54	민 26~27장	두 번째 인구조사-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
24	55	민 28~30장	거룩한 절기와 제사
25	56	민 31~32장	모세와 요단 동편 땅들
26	57	민 33~36장	이스라엘의 여정과 도피성
27	58	신 1~2장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 1
28	59	신 3~4장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 2

부록 3.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3월 성경 범위 및 제목[8]

3월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60	신 5~6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세의 당부
2	61	신 7~9장	명령과 순종
3	62	신 10~11장	하나님의 요구
4	63	신 12~14장	다시 들려주는 율법
5	64	신 15~17장	절기와 송사
6	65	신 18~21장	약속의 땅을 위한 규례
7	66	신 22~26장	거룩한 백성을 위한 법
8	67	신 27~28장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
9	68	신 29~30장	언약의 갱신

[8] Ibid., 8.

10	69	신 31~32장	역사와 미래
11	70	신 33~34장, 시 90편	모세의 축복과 죽음
12	71	수 1~2장	여호수아와 만나세대
13	72	수 3~5장	믿음으로 내딛는 약속의 땅
14	73	수 6~8장	만나세대의 믿음에 따른 전쟁의 승패
15	74	수 9~12장	이스라엘의 승전 기록
16	75	수 13~17징	합당한 분배와 특권
17	76	수 18~19장	복으로 받은 삶의 터전
18	77	수 20~22장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
19	78	수 23~24장	여호수아의 유언
20	79	삿 1장~2:10	남겨진 과제
21	80	삿 2:11~5장	이스라엘의 사사들
22	81	삿 6~7장	기드온과 3백 용사
23	82	삿 8~9장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
24	83	삿 10~12장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
25	84	삿 13~16장	나실인 삼손
26	85	삿 17~18장	기초가 무너진 사회
27	86	삿 19~21장	원칙 없는 문제 해결
28	87	룻 1~4장	아름다운 율법의 구현
29	88	삼상 1~3장	준비되는 사무엘
30	89	삼상 4~7장	사무엘의 말씀 개혁운동
31	90	삼상 8~10장	제사장 제도와 왕정 제도

부록 4.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4월 성경 범위 및 제목[9]

4월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91	삼상 11~12장	길르앗 야베스 사건과 사무엘의 고별사

[9]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2권(서울:도서출판 통독원, 2014), 4.

2	92	삼상 13~14장	사울의 블레셋 전투
3	93	삼상 15~16장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기름 부음
4	94	삼상 17~18장	다윗의 골리앗 전투 승리와 요나단과의 우정
5	95	삼상 19장, 시 59편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6	96	삼상 20~21장, 시 34편	기도로 여는 하늘 문
7	97	삼상 22장, 시 52편	사울의 공안정치
8	98	삼상 23~24장, 시 57편	임명권자 하나님
9	99	삼상 25~26장, 시 54편	하나님의 테스트
10	100	삼상 27~31장	망명지에 들려온 조국의 슬픈 소식
11	101	삼하 1~2장	남유다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
12	102	삼하 3장~5:5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과 통일왕조 수립
13	103	삼하 5:6~6장	예루살렘 정복과 법궤 안치
14	104	삼하 7~10장	종이 된 다윗 왕
15	105	삼하 11~12장, 시 51편	우슬초 정결
16	106	삼하 13~14장	압살롬의 암논 살해
17	107	삼하 15장, 시 3편	압살롬의 반역
18	108	삼하 16~17장	다윗의 도피
19	109	삼하 18~20장	다윗의 복귀
20	110	삼하 21~22장	다윗의 노래
21	111	삼하 23~24장	다윗의 삶의 자취
22	112	왕상 1~2장	다윗의 유언
23	113	왕상 3~4장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
24	114	왕상 5~7장	성전 건축
25	115	왕상 8장	성전 낙성식
26	116	왕상 9~10장	솔로몬의 모든 영화
27	117	잠 1~5장	지혜란 무엇인가?
28	118	잠 6~9장	지혜의 원리
29	119	잠 10~15장	의인의 삶, 악인의 삶

30	120	잠 16~20장	지혜를 구하라

부록 5.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5월 성경 범위 및 제목[10]

5월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121	잠 21~24장	마음과 지혜
2	122	잠 25~29장	악한 길을 피하라
3	123	잠 30~31장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모친의 잠언
4	124	아 1~4장	사랑이란 무엇인가?
5	125	아 5~8장	진실한 사랑
6	126	왕상 11장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7	127	전 1~3장	인생의 뒤안길에서의 고백
8	128	전 4~7장	유한인생 무한지혜
9	129	전 8~12장	사람의 본문을 기억하라
10	130	욥 1~3장	욥의 고난과 탄식
11	131	욥 4~7장	욥과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쟁
12	132	욥 8~10장	욥과 빌닷의 첫 번째 논쟁
13	133	욥 11~14장	욥과 소발의 첫 번째 논쟁
14	134	욥 15~17장	욥과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생
15	135	욥 18~19장	욥과 빌닷의 두 번째 논쟁
16	136	욥 20~21장	욥과 소발의 두 번째 논쟁
17	137	욥 22~24장	욥과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
18	138	욥 25~31장	욥과 빌닷의 세 번째 논쟁
19	139	욥 32~37장	엘릮수의 발언
20	140	욥 38~42장	하나님의 대답
21	141	시 1~2, 4~9편	시와 찬미
22	142	시 10~18편	시와 찬미

[10] Ibid., 5.

23	143	시 19~27편	시와 찬미
24	144	시 28~33편	시와 찬미
25	145	시 35~41편	시와 찬미
26	146	시 42~50, 53편	시와 찬미
27	147	시 55~56,58,60~66편	시와 찬미
28	148	시 67~72편	시와 찬미
29	149	시 73~78편	시와 찬미
30	150	시 79~85편	시와 찬미
31	151	시 86~89편	시와 찬미

부록 6.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6월 성경 범위 및 제목[11]

6월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152	시 91~102편	시와 찬미
2	153	시 103~106편	시와 찬미
3	154	시 107~118편	시와 찬미
4	155	시 119편	시와 찬미
5	156	시 120~134편	시와 찬미
6	157	시 135~142편	시와 찬미
7	158	시 143~150편	시와 찬미
8	159	왕상 12~14장	남북분열과 여로보암의 길
9	160	왕상 15장~16:20	분쟁하는 남북왕국
10	161	왕상 16:21~17장	오므리 왕조
11	162	왕상 18~19장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12	163	왕상 20~22장	오므리 왕조의 죄악과 아합의 최후
13	164	왕하 1~2장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14	165	왕하 3~5장	엘리사가 베푼 기적의 배경

[11] Ibid., 6.

15	166	왕하 56~8장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16	167	왕하 9~10장	예후의 치적과 엘리사
17	168	왕하 11~14장	요아스의 치적과 여로보암 2세
18	169	암 1~5장	나라들에 대한 심판선언
19	170	암 6~9장	정의를 강물 같이
20	171	호 1~4장	호세아의 고멜 사랑 비유
21	172	호 5~9장	제사보다 사랑을 원한다
22	173	호 10~14장	여호와께 돌아오라
23	174	욘 1~4장	열방을 향한 사랑
24	175	왕하 15~16장	북왕국의 쇠락
25	176	왕하 17장~18:12	히스기야의 개혁
26	177	사 1~3장	이사야의 소명
27	178	사 4~7장	그루터기 비유
28	179	사 8~12장	구원에 대한 약속
29	180	사 13~17장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
30	181	사 18~20장	애굽과 구스에 대한 경고

부록 7.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7월 성경 범위 및 제목[12]

7월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182	사 21~24장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2	183	사 25~29장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3	184	사 30~35장	의로 통치하는 왕
4	185	왕하 18:13~37, 사 36장	남유다를 위협하는 앗수르
5	186	왕하 19장, 사 37장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6	187	왕하 20장, 사 38~39장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7	188	사 40~42장	하나님의 위로

[12]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3권(서울:도서출판 통독원, 2014), 4.

8	189	사 43~45장	이스라엘의 회복
9	190	사 46~50장	이스라엘의 구원
10	191	사 51~55장	고난 받는 종
11	192	사 56~59장	참된 회개
12	193	사 60~63장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13	194	사 64~66장	영광과 평화의 청사진
14	195	미 1~3장	영광이 빠져버린 시온 산성
15	196	미 4~7장	영광이 회복될 시온 산성
16	197	왕하 21~23장	왕정 총결산
17	198	습 1~3장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18	199	합 1~3장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9	200	나 1~3장	열방을 향한 공의
20	201	욜 1~3장	마음을 찢으라
21	202	왕하 24장, 렘 1~3장	남유다에 대한 설득과 심판
22	203	렘 4~6장	패역한 남유다
23	204	렘 7~9장	주의 계명을 떠난 이스라엘
24	205	렘 10~13장	약속을 깨뜨린 이스라엘
25	206	렘 14~16장	마음을 돌이키라
26	207	렘 17~20장	남유다의 죄
27	208	렘 21~23장	예레미야의 설득
28	209	렘 24~25장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
29	210	렘 26~28장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30	211	렘 29~31장	끌려간 남유다 백성에 대한 설득
31	212	렘 32~33장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부록 8.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8월 성경 범위 및 제목[13]

8월

[13] Ibid., 5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213	렘 34~36장	포위 중 항복을 위한 설득
2	214	렘 37~38장	예레미야의 수난
3	215	왕하 25장, 렘 39~41장	예루살렘 멸망
4	216	렘 42~45장	남겨진 남유다 백성의 행동
5	217	렘 46~48장	열방에 대한 심판
6	218	렘 49~50장	세계를 향한 심판
7	219	렘 51~52장	하나님의 심판
8	220	애 1~2장	무너지는 예루살렘
9	221	애 3~5장	소망-주의 인자와 긍휼
10	222	옵 1장	형제가 환난 당하는 날
11	223	대상 1~3장	다윗의 계보
12	224	대상 4~5장	이스라엘의 족보들 1
13	225	대상 6~9장	이스라엘의 족보들 2
14	226	대상 10~12장	왕이 된 다윗과 그의 용사들
15	227	대상 13~16장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
16	228	대상 17~20장	다윗의 기도와 승전기록
17	229	대상 21~22장	다윗의 죄악과 회개
18	230	대상 23~26장	다윗 시대 직분자 계보
19	231	대상 27~29장	다윗의 내각과 성전 건축 준비
20	232	대하 1~4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
21	233	대하 5~7장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22	234	대하 8~9장	솔로몬의 업적
23	235	대하 10~13장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24	236	대하 14~17장	남유다 왕국의 초기 왕들
25	237	대하 18~22장	여호사밧의 시대
26	238	대하 23~25장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개혁
27	239	대하 26~28장	웃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

28	240	대하 29~31장	히스기야의 개혁정치
29	241	대하 32~33장	히스기야의 회개와 므낫세의 죄악
30	242	대하 34~36장	요시야 시대와 남유다 멸망
31	243	겔 1~3장	파수꾼으로의 부르심

부록 9.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9월 성경 범위 및 제목[14]

9월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244	겔 4~7장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심판
2	245	겔 8~11장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
3	246	겔 12~14장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짓 선지자들
4	247	겔 15~17장	하나님을 등진 예루살렘
5	248	겔 18~20장	심판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6	249	겔 21~22장	심판받는 이스라엘
7	250	겔 23~24장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
8	251	겔 25~28장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
9	252	겔 29~32장	애굽에 대한 심판
10	253	겔 33~35장	예루살렘의 함락
11	254	겔 36~37장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12	255	겔 38~39장	침략자 곡에 대한 심판과 멸망
13	256	겔 40~41장	환상 중에 본 새 예루살렘
14	257	겔 42~43장	하나님의 본 뜻
15	258	겔 44~46장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
16	259	겔 47~48장	회복과 새로운 땅
17	260	단 1~2장	바벨론 제국에서의 위인
18	261	단 3~4장	꺾이지 않는 신앙
19	262	단 5~6장	제국 변천의 중심에 서서

[14] Ibid., 6.

20	263	단 7~9장	다니엘의 환상과 해석
21	264	단 10~12장	장래의 일들
22	265	스 1~2장	다시 태어나는 공동체, 재건세대
23	266	스 3~4장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다
24	267	학 1~2장	우선순위를 기억하라
25	268	슥 1~6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26	269	슥 7~10장	예루살렘의 회복
27	270	슥 11~14장	이스라엘의 구원
28	271	스 5~6장	성전 재건의 기쁨
29	272	에 1~5장	유다 민족의 위기
30	273	에 6~10장	위대한 구원

부록 10.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10월 성경 범위 및 제목[15]

10월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274	스 7~8장	에스라의 결심
2	275	스 9~10장	개혁을 위하여
3	276	느 1~3장	최종목표를 위한 중간목표
4	277	느 4~7장	성벽 재건을 위한 열심
5	278	느 8~10장	초막절을 기념한 신앙사경회
6	279	느 11~13장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7	280	말 1~4장	천오백 년 사랑의 아쉬움
8	281	마 1~4장	약속의 결정체, 예수
9	282	마 5~7장	산상수훈
10	283	마 8~10장	예수의 이적과 열두 제자 선택
11	284	마 11~13장	하늘 비밀을 담은 일곱 가지 천국 비유
12	285	마 14~16장	예수의 갈릴리 사역

[15]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4권 (서울:도서출판 통독원, 2014), 4.

13	286	마 17~20장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14	287	마 21~23장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의 설득
15	288	마 24~25장	종말에 관한 설교
16	289	마 26~28장	용서를 향한 예수의 열정
17	290	막 1~3장	열두 제자 선택
18	291	막 4~6장	예수의 이적과 가르침 1
19	292	막 7~8장	예수의 이적과 가르침 2
20	293	막 9~10장	변화산 사건과 예수의 가르침
21	294	막 11~13장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 대결
22	295	막 14~16장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역
23	296	눅 1~2장	세례 요한 탄생
24	297	눅 3~4장	구원 사역을 위한 기초
25	298	눅 5~6장	훈련과 동행
26	299	눅 7~8장	예수의 치유와 가르침
27	300	눅 9~10장	약한 자의 이웃
28	301	눅 11~13장	예수의 가르침과 이적
29	302	눅 14~16장	한 영혼 사랑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30	303	눅 17~18장	예수의 치유와 교훈
31	304	눅 19~20장	약자를 위한 배려

부록 11.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11월 성경 범위 및 제목[16]

11월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305	눅 21~22장	최후의 만찬
2	306	눅 23~24장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3	307	요 1~3장	들러리의 기쁨
4	308	요 4~6장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쑤

[16] Ibid., 5.

5	309	요 7~8장	죄인을 감싸주시는 예수
6	310	요 9~11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
7	311	요 12~13장	새 계명을 주심
8	312	요 14~15장	예수의 고별 설교
9	313	요 16~17장	제자들을 위한 예수의 기도
10	314	요 18~19장	예수의 십자가 사역
11	315	요 20~21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12	316	행 1~2장	증인이 된 제자들
13	317	행 3~5장	세워지는 초기교회
14	318	행 6~9장	그리스도인 핍박과 열방을 향한 흩어짐
15	319	행 10~12장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16	320	행 13장~15:35	1차 전도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
17	321	해 15:36~18:22	2차 전도여행
18	322	살전 1~5장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19	323	살후 1~3장	수고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
20	324	갈 1~3장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21	325	갈 4~6장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22	326	행 18:23~19장	3차 전도여행
23	327	고전 1~4장	십자가의 도
24	328	고전 5~8장	교회를 위한 권면
25	329	고전 9~11장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바울의 당부
26	330	고전 12~14장	성령이 주신 은사
27	331	고전 15~16장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보
28	332	고후 1~4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29	333	고후 5~9장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30	334	고후 10~13장	바울의 참된 자랑

부록 12.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12월 성경 범위 및 제목[17]

12월			
날짜	순서	범위	제목
1	335	행 20:1~6, 롬 1~3장	복음에 빚진 자
2	336	롬 4~7장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3	337	롬 8~11장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4	338	롬 12~14장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5	339	롬 15~16장	땅 끝 비전과 받음직한 섬김
6	340	행 20:7~23장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7	341	행 24~26장	가이사랴에서의 2년
8	342	행 27~28장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
9	343	엡 1~3장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구원
10	344	엡 4~6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
11	345	빌 1~4장	고난 중의 기쁨과 감사
12	346	골 1~4장	우주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13	347	몬 1장	기적의 편지
14	348	딤전 1~6장	예수의 선한 일꾼
15	349	딛 1~3장	희망의 상속자
16	350	딤후 1~4장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17	351	히 1~4장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18	352	히 5~10장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19	353	히 11~13장	삶으로 증거되어야 할 이름, 예수
20	354	약 1~5장	행함, 믿는 자의 움직임
21	355	벧전 1~5장	소망의 반석
22	356	벧후 1~3장	거짓 교훈을 물리쳐라
23	357	유 1장	믿음을 위한 투쟁

[17] Ibid., 6.

24	358	요일 1~5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25	359	요이 1장, 요삼 1장	사랑과 진리의 조화
26	360	계 1~3장	교회를 위한 성령의 권면
27	361	계 4~7장	오직 한 분을 위한 노래와 일곱 인
28	362	계 8~11장	일곱 나팔의 심판과 순교자들
29	363	계 12~15장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
30	364	계 16~18장	공의로운 심판과 준비된 미래
31	365	계 19~22장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

부록 13. 심층 인터뷰 활용 설문지

A. 일반 질문

1. 당신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

2.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　　(2) 여

3.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 1년 이하　(2) 1~3년　(3) 3~6년　(4) 6~9년　(5) 10년 이상　(6) 모태신앙

4. 당신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1) 평신도　(2) 서리 집사　(3) 안수 집사　(4) 권사　(5) 장로

B. 통(通)성경 원리 관련 질문

5. 성경을 통독할 때에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읽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각 권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성경 66권 전체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관점에 동의하는지의 여부와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6. 성경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독할 때에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읽어야 한다는 관점에 동의하시는지의 여부와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7. 성경을 통독할 때에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관점에 동의하시는지의 여부와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C. 통(通)성경 방법론 관련 질문

8. 당신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현재 장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통독을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1) 1독 (2) 2~3독 (3) 4~5독 (4) 6~7독 (5) 7독 이상

9. 일반적인 성경 전체를 읽는 성경 통독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와 '통(通)성경' 의 원리에 입각하여 성경을 읽었을 때에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10. 성경의 말씀을 귀로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보셨습니까?

(1) 기독교 텔레비전 (2) 인터넷 싸이트 (3) 라디오 (4) 부모를 비롯한 타인으로부터

(5) 말씀 음원(TAPE 및 CD) (6) 휴대폰 어플리케이션(1년 10번 성경듣기 등)

(7) 기타( )

11.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장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서술해 주십시오!

12. 성경 통독과 성경 듣기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을 말씀해 주십시오!

D. 통(通)성경 프로그램 관련 질문

13. 통(通)성경학교와 통독새벽기도회에는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었습니까?

(1) 목회자의 적극적인 권면 (2) 성도로서의 의무 (3) 말씀에 대한 갈급함

(4) 주변 분들의 추천 (5) 기타( )

14. 교회에서 진행하는 통(通)성경학교에 참여하신 빈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1) 90% 이상 (2) 70% 이상 (3) 50% 이상 (4) 50% 미만

15. 통(通)성경학교에 참여하면서 느낀 장점과 생각을 아래의 보기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1) 말씀의 이해가 한층 쉬워졌다. (2) 성경의 역사와 흐름이 이해가 된다.

(3)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연결이 된다. (4)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5) 기타( )

16. 통독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신다면 그 빈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매일 (2) 절반 정도 (3) 일주일에 1번 (4) 한 달에 5회 미만 (5) 못하고 있다.

17. 통독새벽기도회는 역사 순서대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살피는 새로운 묵상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여하면서 느끼는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E. 말씀 이해에 대한 질문

18.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에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연결이 되십니까?

(1) 잘 연결된다. (2) 조금 연결된다. (3) 모르겠다. (4)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19.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온 스토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예를 들면, ‘그 순간’ 이야기,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5대 제국 이야기 등)

20. 통(通)성경 방법론(성경통독/성경듣기/성경 묵상)을 통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점이 유익한지를 자유롭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문헌

외국어서적

Choun, Robert J. and Lawson, Michael S. *The Christian Educator's Handbook on Children's Ministry*.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8.

Fee, Gordon D. and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A Guide to Understanding the Bible, 2nd ed.* Grand Rapids: Zondervan, 1993.

Keener, Craig S.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New Testament.* IL: InterVarsity press, 1993.

Sweet, Leonard.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Sweet, Leonard. *The Church of the Perfect Storm*.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번역서적

Hayden, Edwin V., Mckinney, Roy W., Hall, Gary H. abd Thurman, Thomas D. *A Through The Reading Program*, 오현미 역. *1년 완성 성경전서 읽기 안내*. 서울: 나침반, 1989.

Rodes, Arnold B. *The Mighty Act of God*. 문희석, 황성규 역. *통독을 위한 성서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Smith, F. LaGard. *The Narrated Bible in Chronological Order*. *연대기 성경*. 서울: 두란노, 1995.

Sweet, Leonard. *Out of the Question...Into the Mystery*. 윤종석 역. *관계의 영성*. 서울: IVP, 2014.

Sweet, Leonard. *Postmodern Pilgrims*. 김영래 역.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서울: 좋은씨앗, 2009.

한국어서적

김낙준, *뉴에이스 국어사전*. 서울: 금성교과서주식회사, 1993.

성경통독원. *성경통독원 화보집 1989~2010.* 서울: 통독원, 2010.

성경통독원. *성경통독원 화보집 2011~2017*. 서울: 통독원, 2017.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1권*. 서울: 통독원, 2014.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2권*. 서울: 통독원, 2014.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3권*. 서울: 통독원, 2014.

조병호, *1년 1독 큐티 성경 통독 4권*. 서울: 통독원, 2014.

조병호. *그 순간*.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서울: 통독원, 2013.

조병호, *마음과 생각 11/12월호*. 서울: 통독원,

조병호, *성경과 영성*.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 서울: 땅에쓰인글씨, 2004.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3.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스쿨*.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08.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조병호, *통바이블*. 서울: 통독원, 2017.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최윤식, 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논문, 잡지

강경태. “성경 통독이 성도의 설교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김광중.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서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할 때 나타나는 변화.”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김성병. “성경교육으로서의 성경통독방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신학과 세계 84*, 2015, 526-554.

김한성. “통(通)성경 방법을 통한 성경듣기에 대한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윤광석. “1년 1독 통(通) 성경읽기를 통한 신앙성장에 대한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목회와신학 편집부. “설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와신학 74,* 2013. 1, 66-76.

이동환. “특집대담 조병호 박사” *목회와신학*, 2012. 3, 48-52.

“동아시아 선교 교두보 제주, 현지인 새신자 안 늘어 걱정.” 국민일보 2017년 10월 27일.

“전세계 3명 중 2명 스마트폰 사용자” 아시아경제 2017년 10월 17일.

“한국 신학자 140인 서울 선언: 성경을 통(通)한 재정향.” *자료집* (2008).

“2018년 제주교회 450개 교회로 출발.” 제주기독신문 2018년 1월 12일.

Website.

성경통독원 http://www.tongbible.net

대한성서공회 http://www.bskorea.or.kr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Kyungmin Min

Place and Date of Birth: JeJu, South Korea, Dec. 18, 1975

Parent`s Names: Jonggyu Min and Soonjoo Song

EDUCATIONAL INSTITUTIONS

School (Name and Address)		Degree	Date
Secondary:	**Jejujeil High School** 22, Jingun-gil, Jeju, South Korea.	Diploma	Feb. 7, 1994
Collegiate: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South Korea.	B. A.	Feb. 16, 2001
Graduate: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50, Gwanggyojungang-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South Korea.	M. Div.	Feb. 22, 2005
Graduate:	**Chongshin University** 143, Sadang-ro, Dongjak-gu, Seoul, South Korea.	Th. M.	Feb. 8, 201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Kyungmin Min

Name typed

May 4. 2018

Date